사 설

황규영 양에게 도움의 손길을

사고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황규영(환경2)양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다. 주로 과학생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황양에 대한 성금모금운동이 이제 총학생회와 PC통신상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다.

지난 8월3일 등교길에 차에 치인 황양은 현재 병원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삶을 살고있으며 뺑소니를 친 가해자의 경우 뚜렷한 배상능력이 없어 가장 기본적인 치료비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한다. 황양은 앞으로 약3개월정도 지난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평생 식물인간으로 남을수 있다는 잔인한 진단을 받아놓고있는 상황이다.

몇 년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황양은 자연대교무과에서 방중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한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에 등교하던중 사고를 당한 황양의 주변엔 뚜렷하게 의탁할수있는 인물이 없다. 물론 일부 친구들과 동료들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들만의 힘으로는 황양의 쾌유를 기대하기엔 너무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이에따라 1인1구좌 운동과 함께 대동제기간중 일부행사를 황양을 위한 행사로 기획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PC통신 경희대 동호회에서도 황양을 돕기위해 구좌를 개설하고 11월7일까지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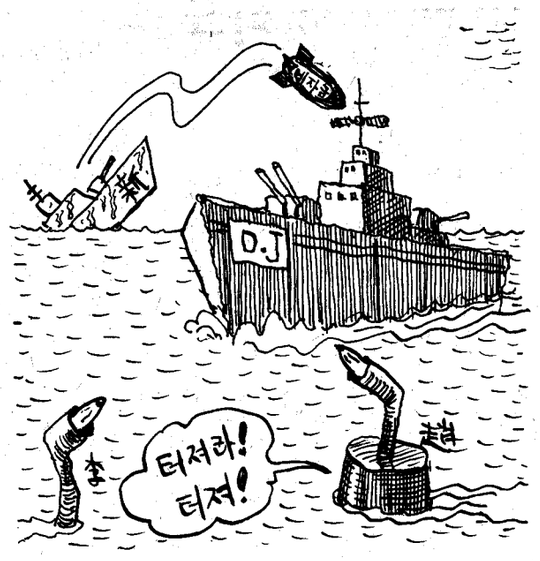
대학은 공동체사회이다. 아니 사회 전체가 공동체라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세기말 현상에 편승하여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들로 치부해버리는 시각들이 대학사회에도 만연되어있는 상황에서 황양을 위한 학내에서의 움직임은 하나의 돋보이는 미담사례라고 할수 있다. 황양을 돕기위한 손길들이 좀더 많아지고 더나아가 황양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다면 현재의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희망을 각자의 가슴에 품어안을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황규영양의 현재는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스무살의 그녀에게 현재의 상황은 혼자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무게를 지운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황양의 삶에 희망이 드리우는가 드리우지않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황양을 돕는 일은 단순히 황양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희망을 부여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아름 안아오자.

경희만평

김 진 우



"혼자선 침몰하지 않는다"

시론

국회정치개혁특위 활동에서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하여

담합정치, 시민참여로 극복하자

형식적인 구색갖추기는 한국정치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파하기에 역부족이다

김 윤 철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지난 8월 이후 구성되어 활동해왔던 국회정치개혁특위는 한보비리와 김현철 사건, 92년 대선자금 파동 등의 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졌던 한국정치의 '고비용·부패구조'의 청산과 관련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말의 대통령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은 이후 한국정치의 구조개혁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때 형식·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작부터 거듭된 난항

가령 민주당의 특위참여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은 시작서부터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하였다. 애초 신한국당은 민주당의 참여수용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이때 신한국당은 특위활동의 원할한 진행을 근거로 민주당의 참여를 주장하였으며 두야당은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참여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경우 당시 조순서울시장의 민주당 대선후보로의 출마가 오히려 여당후보의 지지기반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배제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한편 야당, 특히 국민회의의 경우는 지난 6.27 지자체 선거 이후의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겪게된 갈등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회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단지 배제만을 요구했다는 문제점을 보였다. 즉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제한적인 정당정치세력들 내에서라도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한계는 여야 각당 내부에서마저 '밀실진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속기록마저도 하지 않음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더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중배재적 정치구조

이러한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은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지정기탁금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등 핵심쟁점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패구조 청산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떡 값'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담합'의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했을 정도로 여야를 불문하고 각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해 투명성이 확보되기에는 매우 미약한 것이었다.

물론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에 따라 대선후보자의 TV연설비용의 국가보전, 사조직의 근절 등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합의되었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부분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구색갖추기로는 한국정치가 직면해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타파해나가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이 단지 이러한 형식적 측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세력의 소모적인 대립과 당리당략적인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중들의 감시와 견제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민중배제적' 정치구조 때문이기에 그렇다.

즉 민중배제적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정치세력들이 다양한 민중적 이해를 반영하고 대표함으써 형성된 동의와 지지에 기반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정치적 지도자의 단기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뚜렷한 민중적 동의와 지지에 기반하지 않음으로써 곧 담합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고비용·부패구조 그 자체는 단지 이러한 민중배제적 정치구조의 반영이고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이것의 청산이 단지 몇 가지 형식적-절차적 수준에서 해결되어지는 수준을 밟았던 것이다. 이러한 파악과 해결의 수순은 정당정치세력들이 민중배제적 구조를 개혁하려는 목표를 갖기 보다는 단지 주어진 구조적 제약 속에서 자신들의 단기적 이해에 급급하는 당리당략적 목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금번 정치개혁특위의 내용적 측면에서 드러난 명백한 한계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 연대 세력 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유의할 것은 이러한 정당정치세력들을 단지 '규범적'으로만 비판할 수는 없는 처지라는 점이다. 그들의 경우에는 '현실정치의 논리'에 기반한 권력의 획득을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중배제적 정치구조를 타파할 시민사회내의 민중세력들이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시민사회내의 동의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를 통해 정당정치세력들을 강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PC 통신원

PCS, 사용자 우롱하기

요즘 많은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PCS의 가격이 예약가입 당시보다 10만원 가량 인상,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PCS 각사에는 사전 가입자들의 항의와 환불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 항의의 기운은 PC통신상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휴대폰과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팔 것이면 휴대폰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이제는 예약가입자들이 소비자 보호단체를 찾아야 할 때(ID:ZPCBBS15)라는 의견부터 예약가입자들의 분별없는 음질적 항의보다는 PCS회사들의 신뢰할만한 정책 또는 진실을 기다려보자(ID:PAINMAN)는 의견까지.

이에 대해 LG사의 영업관리팀에 근무한다는 통신참여자(ID:BADAGA)는 이와 같은 가격 차이와 더불어 단말기 공급 지연에 대해, 원래대로 내년부터 상용서비스를 했으면 가격과 공급 모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인 즉, 단말기의 핵심부품을 미국의 퀄컴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서비스시기가 앞당겨지다 보니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제조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덧붙여 내년이면 공급과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다.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겨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다. PCS사들에게 있어서도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들과의 약속은 중요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비싼 공급가격을 감수하고 단말기 수급을 감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설정한 공급가격 또한 소비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음을 알지는 못했던 것일까.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강남이 기자〉

세·시·봉

'O-157' 탑승한 '에어포스 원'

김동욱 시사부장

'테러범을 진압할 수 있는 무적대통령'

근래 개봉한 허리우드영화인 '에어포스 원'을 보면 대통령전용기에 침입한 테러리스트를 대통령 혼자 처리한다. 테러리스트는 소련의 부활을 꿈꾸며 그동안 미국이 약소국에 보여온 만행에 응징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한 테러범의 말에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그를 무참히 살해한다. 이 영화에서 표현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 강하다.

최근 미국과의 통상에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네브레스카산 수입쇠고기에서 발견된 O-157이 바로 그것이다.

O-157이 발견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아직 미국에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검역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듯 자국조사단 4명을 우리나라에 파견했다. 하지만 이번 O-157병원균 발견은 우리나라가 자체개발한 방법을 사용했고 진단효율 99%를 자랑한다. 미국도 검역신뢰성이야 어찌되었든 자국의 식품위생 부족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으며 당연히 해야할 수입중단조치라도 내리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조치라도 내린 후에 검역과정을 되묻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신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만약 역으로 생각하여 우리나라 쇠고기가 미국에서 말썽을 일으켰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O-157 파동과 비슷하게 나타난 미국의 '수입산 과일·채소류 위생검사강화'에 따라 미국검역원들이 국내로 들이닥쳐 철저한 내정간섭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번 O-157파동과 관련해 부산하역창고에 싸여 있는 문제의 쇠고기 전량을 미국에 돌려보내려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O-157병원체가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진 않지만 두 나라간 무역에 있어 무시 못할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진정한 대국이라면 좀 더 당당한 플레이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에어포스 원'에서 그려졌던 미 대통령이 만약 테러범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의 외교에 수렴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까지 미국은 자존심을 굽힐 수 없다면 그것은 오만과 독단밖에 안될 것이다.

경희대학교 '98학년도 전기 일반·특수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 ☎ 961-0122~4/0331) 280-2135~6

1998학년도 전기 석사·박사학위과정 일반전형

1. 모집과정 및 모집학과

1. 석사학위과정 : 국어국문, 영어영문, 불어불문, 중어중문, 일어일문, 서반아어, 사학, 철학, 법학, 행정, 정치, 신문방송,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유전공, 식품가공, 환경, 우주과학, 농학, 임학, 조경, 원예, 아동주거, 식품영양, 의상, 간호, 약학, 임상약학, 기계공, 화학공, 섬유공, 전자공, 전자계산공, 원자력공, 토목공, 건축공, 산업공, 전파공, 의학, 한의학, 치의학,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도예, 스포츠과학
2. 박사학위과정 :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학, 철학, 법학, 행정, 정치,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유전공, 식품공, 환경, 농학, 임학, 조경, 가정(아동주거, 의상), 식품영양, 간호, 약학, 우주과학, 기계공, 화학공, 섬유공, 전자공, 전자계산공, 원자력공, 토목공, 건축공, 산업공, 의학, 한의학, 치의학, 체육
3. 석·박사학위 협동과정 :
   학·연·산 협동과정-한국과학기술연구원(화학,물리,생물,의학,치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화학,생물,약학,한의), 한의학연구소(한의학)
   학과간 협 동 과 정 -동서의학, 정보디스플레이(석사과정), 기술경영(석사과정)
4. 연 구 생 : 전 학과 석·박사학위과정

—(밑줄) 표시된 학과의 원서 접수와 전형은 수원캠퍼스에서 실시함.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년 10월 20일(월) ~ 10월 23일(목)
(해당캠퍼스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자 : 1997년 11월 8일(토)

4. 전형방법 및 시험과목

1. 전형방법 : 필기시험, 구술시험 및 실기시험(음악, 미술학과만 해당)
2. 시험과목 : 전공, 영어, 구술시험, 제2외국어(한의학과 박사과정만 해당)

※영어시험 면제대상 : ①최근 2년 이내 TOEFL시험 성적 550점(예·체능계열은 450점)이상 취득한 사람
②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사람

※연구생 : 구술시험만 실시

5. 지 원 자 격

1. 국내·외 대학교(석사) 또는 대학원(박사)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
2.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3. 학·연·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은 동일계의 학과 또는 전공에 지원하는 사람

6. 제출서류

①입학원서 ②여권용사진 4매(입학원서) ③최종학교 졸업(예정) 및 성적 증명서(각 학위등록번호 및 백분성적 기재) ④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⑤이력서(박사과정 지원자) ⑥특수대학원 출신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⑦미술학과 지원자는 출신대학 지도교수 추천서, 연구실적(최근 작품의 칼라사진 5×7) 20매 ⑧학·연·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은 재직증명서, 연구계획서, 소속기관장 취학승인서, 우리 대학원 해당학과 교수 추천서 및 학·연·산 협동 연구기관 추천서. 각 1부

※외국대학(대학원) 졸업자는 ③항의 서류제출시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하고 한글공증 번역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7. 기 타

본 대학원 박사과정은 4학기 수료가 가능하며 자연계 박사과정은 병역특례대상임.

경영대학원(야간) ☎ 961-0127~8/961-9688

1. 모집과정 및 학과

1. 석사학위 과정 :
   경영학과(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회계학, 재무관리, 국제경영전공)
   세무관리학과(세무관리, 조세행정, 조세정책, 조세법학전공)
   노사인력관리학과(인력자원관리, 노무관리, 노동정책, 노사관리, 노동경제전공)
   관광경영학과(관광자원개발, 호텔경영, 관광홍보, 관광사업경영전공)
   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행정전공)
   무역경영학과(무역경영, 무역정책, 통상관계법, 국제경제전공)
   의료경영학과(병원경영, 한방병원경영, 의료정책, 실버산업과 요양기관경영전공)
2. 연구과정 : 석사학위 과정에 준함
3. 최고경영자과정
4. 특별관리자과정 : 세무관리, 노사관리, 안전관리전공(각 전공별 별도강좌 개설)
5. 국제통상전문가과정

2. 응시자격

과 정	자 격
석사학위과정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졸업자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자 •의료경영학과 자원자는 의료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
연구과정	•석사학위 과정에 준함
최고경영자과정	•기업경영자 •공·사기업 간부급 •창업희망자 •학력제한 없음.
특별관리자과정	•세무관리, 노사관리, 안전관리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 •해당전공에 관심 있는 분
국제통상전문가과정	•상품무역업체의 기업인 •국제관광무역업체의 기업인 •기타 서비스업체의 기업인 •국제통상관련 공무원 •국제통상 관련기관의 종사자 •기타 서비스업체 및 국제통상관련 업체 창업 희망자

3. 전형방법 및 모집인원

1. 특별전형 : 모집인원의 50%이내 선발 : 전과정 동일
   -응시자격 : 기업경영자, 공·사기업 간부, 국가고시합격자,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 전과정 공통 무시험 특별전형(서류전형, 면접)
2. 일반전형 : 각과정 00명
   1) 석사학위 과정 : 일반논술, 면접
   2) 연구, 최고경영자 및 특별관리자과정 : 서류전형, 면접
   3) 국제통상전문가과정 : 서류전형, 면접

4. 전형일정

구 분	특 별 전 형	일 반 전 형
원서교부 및 접수	97.11.3(월)-11.7(금)	97.11.7(금)-11.19(수)
전 형 일	97.11.8(토) 10:00(면접)	97.11.22(토) 14:00
합 격 자 발 표	97.11.12(수)	97.12.4(목)
합격증교부및등록	97.11.12(수)-11.15(토)	97.12.4(목)-12.10(수)

5. 특 전

1) 공·사기업 간부급, 국가고시 합격자, 실무경험이 많은 분을 전형시 우선함.
2) 석사학위 과정중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수석입학자 및 재학중 성적우수자에 장학금 지급

교육대학원(야간)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과정	계열	전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과학계열	교육행정 교육공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 명
	어학계열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어교육 중어교육	○○ 명
	이학계열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환경교육	○○ 명
	실업계열	공업교육 상업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 명
	예·체능계열	음악교육 미술교육 디자인교육 도예교육 체육교육	○○ 명
	의학계열	간호교육	○○ 명
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에 준함	○○ 명

2. 지원자격

1. 석사과정
   1)(특별전형) : 면접시험,서류심사
   가) 교장, 교감, 장학사 및 해당분야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대학원전공이 동일하고, 관련되는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 이상을 소지하고 현직에 종사하는 자.
   다) 초등교육,유아교육 지원자는 해당되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종사하는 자.
   라) 「실기교사」로서 5년이상 현직에 종사하는 자로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대학원전공 이 동일한 자.
   2) (일반전형): 전공시험,면접시험,서류심사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 타전공 출신자도 지원자격을 부여 함. 단, 이경우 입학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석사학위취득은 가능하나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2. 연구과정 : 석사과정에 준함.

3.전형일시

1.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년 11월 3일(월) ~ 11월 7일(금) 09:00~17:00
2. 전공시험 : 1997년 11월 15일(토) 14:00 ~15:30
3. 면접시험 : 1997년 11월 15일(토) 15:40 ~16:20
4. 합격자발표 : 1997년 11월 24일(월) 14:00 본 대학원 게시판

4.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대학원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통 (학위등록번호 기재)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전학년 평점 및 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4.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에 한함)
5. 교원자격증 사본 1매(해당자 전원)
6.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 전원)
7. 명함판사진 3매
8. 전형료 40,000원

5. 전형일시

1.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년 11월 3일(월)~11월 7일(금) 09:00~17:00
2. 시 험 일 시 : [전공시험] 1997년11월 15일(토) 14:00 ~ 15:30
   [면접시험] 1997년11월 15일(토) 15:40 ~ 16:20
3. 합격자 발표 : 1997년11월24일(월) 14:00 본 대학원 게시판
4. 합격자 등록 : 1997년11월24일(월)~11월 28일(금) 서울은행 휘경동지점

행정대학원(야간) ☎ 961-0131~2 FAX 962-1213

1. 모집학과 및 인원

1. 석사과정
   1) 행정학과 : 정책학전공, 행정관리전공
   2) 안보정책학과 : 안보정책전공, 북한연구전공
   3) 의료행정학과 : 간호행정전공, 병원행정전공, 보건행정전공
   4) 도시행정학과 : 도시행정전공, 지방자치전공
   5) 환경행정학과 : 환경행정전공
   6) 사법행정학과 : 사법행정전공
   7)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
   8) 보험행정학과 : 보험행정전공
2. 특별과정
   1) 최고정책과정 2) 의회지도자 과정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년 10월 27일(월)- 10월 31일(금)
3. 시험일시 및 장소 : 1997년 11월 8일(토)14:00 본대학원
4. 시험과목

1. 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2. 특별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및 장학금

1. 공무원, 본대학교 졸업생, 현역군인 은 20% 수업료 감면.
2. 사회복지전공으로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6. 수업일정 : 매주 목요일, 금요일 18:30-21:20
7. 기타사항

1. 원서대금 : 3,000 원 수험료 : 40,000 원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